해남 火電 유치 재추진 파장

5월 군의회 부결로 무산…지역갈등 재연 우려

지난 5월 해남군의회의 동의안 부결로 무산됐던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가 주민청원 방식으로 재추진돼 지역 내 갈등이 예상된다.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는 16일 군청앞 광장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후 유치 청원서를 해남군과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치위는 재구성한 후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치위는 성명에서 "해남면에 건립을 추진한 '해남 그린 화력발전소' 유치가 일부 군의원의 소신 없는 투표로 무산됐다"면서 "무조건 반대는 지역을 퇴보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자를 통한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는 지난 5월 7일 군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해남군이 제출한 유치 의향에 따른 동의안은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5명이 반대하고 찬성과 기권이 각 3명이었다.

지난 5월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과 기권한 의원들이 최근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대거 진출한 것도 지역 재추진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중국의 다국적 회사인 MPC 코리아홀딩스가 화원면 일대 250만㎡ 부지에 모두 7조 6000억원을 투입, 5000MW급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찬반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지역민 간 심각한 갈등을 가져왔다. 인접한 목포시, 신안, 진도 주민까지 반대에 가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확산됐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여수 진성여고 학생들이 최근 부산 신라대 동북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8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해 장기자랑을 하고 있다. 한마당 행사는 지역간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여수시 제공〉

서해 풍랑주의보 기준 광주기상청 "완화 안돼"

신안군이 광주지방기상청에 제기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기준 완화건의〈광주일보 7월 12일 11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기상청은 "지난 13일 '해양기상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신안군, 여수해양항만청, 서해해양경찰청, 기상청 관계자 등과 논의한 결과, 풍랑주의보 발효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지었다"고 15일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특보 발효 기준이 일본과 호주 등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높지 않을뿐더러, 특정 지역의 기준만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군은 잦은 기상특보 발효로 인한 선박 운항 중지로 72개 도서 지역을 비롯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풍랑주의보 발효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기상청에 건의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장흥군, 전국 지자체 최초 '그린시티' 됐다

환경부 공모 선정

장흥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그린시티(green city)에 선정돼 녹색 생명산업의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장흥군은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친환경 '그린시티' 공모에 참여해 환경 인프라·환경시책·환경보전·생태환경 보전 활용 등을 인정받아 '그린시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장흥군은 그동안 '건강도시', '안전도시', '여성 친화도시' 지정까지 받아 슈퍼 행정의 그랜드슬램을 달성, 실질적인 품격의 명품도시로 진화하게 됐다.

군은 쓰레기 위생 매립장, 친환경 소각장, 탐진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인프라 구축과 억불산 우드랜드와 편백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비 에코토피아', 목조전시 체험과 치유프로그램인 '아토피 힐링 캠프' 등 자연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춘 군 환경산림과장은 "현재 범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에 머지 않아 장흥군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지자체로서 건강과 휴양, 힐링 관광이 함께 하는 그린시티로 발돋움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시티'는 환경시범 도시이며 녹색성장의 상징적인 거점지역에 주는 인증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서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10월 24~30일 7일간

국내 최고 건강체험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오는 10월 24~30일 장흥 천관산 일대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15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 통합의학의 산업화를 위해 오는 '2012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통합의학박람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장흥군과 전남도한방산업진흥원, 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는 '자연과 인간을 잇는 건강 통합의학'이라는 구호(슬로건)로 통합의학관, 협회단체관, 보건홍보관, 의료산업관, 학술관, 자연체험관, 버섯·약용작물 전시관, 건강음식관, 정남진 국화축제 등으로 펼쳐진다.

또 지난해와 달리 통합의학적 진료 및 체험을 위해 통합의학관에서는 만성질환을 관절을 치료하는 통증관, 뇌졸중 중풍을 치료하는 신경관, 피부관, 건강검진관 등을 마련했다.

양방과 한방·보완대체 의료를 함께 체험토록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보고 체험하고 건강도 확인하는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통합의학에 대한 이해와 의학의 발전 방향 등을 강연하고 관람객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명의·명사 6명들의 강연과 학술 심포지엄, 건강 증진포럼도 열린다.

전남도 배양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개최된 박람회에는 72만명이 다녀갔으며 이 가운데 32만명이 검진과 의료체험을 했다"면서 "전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익한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새얼굴

"고민하고 공부하는 의회 만들겠다"

양 영 모 신안군의회 의장

"지역민을 위해 귀와 눈을 활짝 열어 소통과 경청으로 민의를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최근 신안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양영모(58·통합민주당)의원은 "군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겠다"며 "진정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비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후반기 의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 지도읍 출신인 양 의장은 지난 2002년 제4대 의회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3선 의원으로 6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남원시 '여성 친화도시' 비전 선포식

남원시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13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시민·여성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동영상 시청, 경과·추진계획 보고, 비전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청내 모유수유실 설치 ▲보도블럭 교체 ▲방범용 CCTV 및 가로등 확충 ▲여성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립도서관내 유·아동 열람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했다.

시는 앞으로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을 펼쳐, 2013년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부안군 '도랑하천 살리기' 민관 총회

부안군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도랑하천 살리기에 나섰다.

부안군과 '강살리기 부안군 네트워크'는 최근 석정 문학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안권 관리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강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정식과 함께 깨끗한 도랑하천 만들기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며 생태적인 삶을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한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실천하며 솔선·수범 한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택천 전북도 강살리기 추진단장은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도랑하천을 먼저 살려야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도교육청 올 특수학교 32억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32억여원을 지원한다.

전북도교육청은 "특수학교·학급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사립 특수학교 11곳을 선정하고, 교재교구 및 시설설비가 노후된 초·중·고 특수학급중 희망학교에서 100곳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특수학교 1곳당 3000만원씩 총 3억3000만원 ▲특수학급 1곳당 2750만원씩 총 27억 5000만원 ▲특수학교 놀이장 9100만원 ▲특수학교 치료기기(유화학교) 5600만원 등 총 32억2700만원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선정된 학교·학급에 ▲시설 및 교재교구 ▲직업전환 교육 관련 기자재 및 시설 ▲중도 중복 장애학생 및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보상 공학기기 및 기자재 ▲전자칠판, 바닥, 싱크대 등 일상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대학생 농촌 일손돕기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12일 무주군 적상면 콩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다. 전북대생 1600명은 12일부터 18일까지 무주·장수·진안·임실군 등지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벌인다. /연합뉴스

올 전주소리축제 중심은 판소리

'소리 한 상' 주제 9월 13~17일 203회 공연

오는 9월 열리는 '제 12회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판소리에 초점을 맞춰 전통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대중성에 방점을 찍었다.

전주 세계소리 축제조직위원회는 최근 전주시 한옥마을 최명희 문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개 프로그램에 203회 공연으로 구성된 '2012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축제는 중견 명창들의 화려한 판소리 다섯 바탕에서 부터 판소리극, 창극과 같은 창작 작품 등 판소리의 원형에서부터 창작의 영역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판소리와 함께 판소리극 '2012 광대의 노래', 전통 기악을 감상할 수 있는 '산조의 밤', 음반으로 옛 명창의 소리를 감상하는 '고음반 감상 음악회' 등 전통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이 연일 관객들을 찾아간다.

지난해 국악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던 '소리 프론티어'는 8개 팀이 참가해 총상금 2000만원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올해 축제는 전통성이 강화된 국악 공연과 함께 월드뮤직의 다양성을 맛볼 수 있다.

창단 50주년을 맞아 월드투어에 나선 살사밴드의 최고 거장인 '엘 그랑 콤보'가 처음으로 한국에 내한해 정열적인 라틴음악을 선보인다.

실크로드 음악을 현대화시킨 'DJ 클릭'은 자유와 열정을 상징하는 집시음악을 들고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포르투갈의 전통 성악 '파두'도 이번 축제를 통해 한국에서 첫 공연을 갖는다.

박칼린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전통국악을 중심으로 생활의 소리, 뮤지컬과 영화음악 등 다른 장르에 숨겨진 우리 소리를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2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 한 상 가득'이란 주제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남원시, 영농도우미 지원금 전액 보조

남원시는 사고·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을 전액 보조한다.

대상은 농지 소유규모가 5ha 이하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5일 이상 입원한 경우다.

해당농업인은 병원에서 진단 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에 입원 전후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연간 10일까지 52만원이다. 남원시는 농업인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이상주 김제경찰서장 현장체험 근무

이상주 김제경찰서장은 지난 12~13일 심야시간대에 경찰서내 112 종합 상황실에서 현장체험 근무를 했다.

이 서장은 직접 112신고 접수를 하고, 지구대 파출소 112순찰차 근무자들에게 신고 내용과 대처상황을 지령하는 등 상황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체험했다.

이 서장은 "직원들과 호흡을 맞춰 공감대를 형성하고, 112 상황실을 한 단계 발전시켜 경찰상 정립을 통한 시민만족 치안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정읍 모든 학교 하반기부터 친환경 급식

정읍지역 모든 학교가 하반기부터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한다.

정읍시는 하반기에 관내 69개 초·중·고교에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총 1억 1900만원)를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양파, 상추, 사과, 버섯, 감자 등 17품목으로,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 전액을 지원한다.

김생기 시장은 "행정, 교육기관, 농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수도권 귀농학생 45명 부안 농촌 체험

전북 귀농·귀촌 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수도권 귀농학교 2기 교육생 45명이 지난 14일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우리 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방문했다.

귀농학교 교육생들은 김호수 부안군수로부터 부안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등을 소개받았다.

부안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부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함께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